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년 상반기 뉴스레터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동문소식

- 7 동창회
- 8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 9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 10 동문출간
- 11 동문홍보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담당교수 조경진
학과조교 김고은, 남궁옥, 노초원, 임동민, 홍은정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박이수, 이정훈, 허운상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3
	2. 행사/학술/연구	12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2
	4. 교수동정	28
	5. 석·박사과정	32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8
동문소식	7. 동창회	41
	8.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45
	9.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47
	10. 동문출간	49
	11. 동문홍보	50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환경계획·설계

환경계획·설계는 환경대학원 석사과정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으로서, 환경대학원 내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및 환경 관련 응용학문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참여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팀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 환경계획·설계에서는 '김포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김포시 도시환경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업을 시작함에 앞서, 김포시는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3월 11일에는 김포시와 환경대학원의 '김포시 도시환경정책연구 업무협약식'이 환경대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영록 김포시장을 포함한 김포시 공무원 11명과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포함한 환경대학원 교수 5명, 환경대학원 학생 90여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식 이후에는 유영록 김포시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포시의 현안과 관학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유 시장의 강연을 통해 김포시의 현황과 비전을 알 수 있었다. 유 시장은 김포에 대해 농촌과 어촌, 도시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이 국내 3위로 한 해 2만 8천여 명이 증가하는 역동적 도시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김포시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도시, 문화도시, 배려하는 복지, 쾌적한 생활환경, 소통의 행정과 같이 다방면에서 정책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포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동시에 북한과도 접경한 지역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면에서도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색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김포시가 평화통일의 발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전했다. 유 시장은 환경대학원과의 도시환경정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서부수도권 핵심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연 직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김포시가 도시계획 분류상 남부권 중심으로 개발된 사유와 한강 철책선의 제거 시기, 환경부의 람사르 등록 추진범위, 대중국 전략 기지화 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며 김포시에 대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3월 18일에는 김포시의 협조와 지원으로, 김포시 현장 답사가 이어졌다. 이 날 답사에는 학생 84명, 조교 2명, 교수 2명으로 총 88명이 참석하였고, 김포의 다양한 지역을 답사하기 위해,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날 답사한 지역은 1팀-경인아라뱃길, 김포도시철도홍보관, 스마트피아센터, 김포한강신도시, 2팀-김포시기업지원센터, 김포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 양촌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 3팀-애기봉, 대명항, 함상공원, 평화누리길 등 이다.

이날 답사에서 학생들은 각 지역 담당자들의 상세한 설명으로 해당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환경계획-설계는 김포시가 다양한 도시환경적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10-12개 조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총 17개 조(조당 4-5명)가 17개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담당교수(김태형 교수, 환경계획학과)가 있지만, 각 조의 프로젝트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수 4명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세밀하게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명의 지도교수는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 학과장,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교통·환경 융복합전공),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 교통학전공),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이다.

한편 한 학기동안 환경대학원의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강의를 통해 김포시의 도시·환경 현안을 풀어나가는 다양한 학문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지방정부(도시)와 기후변화'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한국의 도시설계: 역사와 전망'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출근길과 북한접경지역에 대한 단상'
-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 교통학전공) '공유공간과 비동력 교통'
- 서예레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도시 보존, 보전, 개발, 그리고 관리의 문제'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장소정체성과 장소마케팅'
-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디벨로퍼와 소평물'
-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도시·지역경제의 변화와 재생정책의 방향'
-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신도시의 직주불균형'
-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도시재생-구도심'
- 송승훈 교수(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농촌경관, 농촌관광'
-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 도시·교통·환경 융복합전공) '지속가능성'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김포시의 현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다.

- 안기정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
- 김인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 '김포시 현안'

김포시 도시·환경정책 연구를 진행한 17개 조는 6월 3일 교내 최종발표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다. 17개 조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조(전배석 외 4명) '교육으로(路), Edu-ward'
- 2조(송일찬 외 4명) 'Best Gimpo, Nest Gim-po'
- 3조(박현철 외 4명) '김포시 카풀 시스템 : G-pool'
- 4조(노재욱 외 4명) '새로운 수상 교통의 허브, 골드포트'
- 5조(정재우 외 4명) 'MAAM (music+art+agriculture+military)'
- 6조(조준희 외 4명) '김포 금빛마을 프로젝트'
- 7조(김명천 외 4명) '다시 만난 한강'
- 8조(박정태 외 4명) '김포5일장 홍보를 통한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 9조(문산유 외 4명) '걷다, 평화누리-염하 따라 철책선 따라 평화를 잇는 길'
- 10조(문보경 외 4명) '새싹맨 in 김포'
- 11조(맹희영 외 4명) '지속가능한 토지재생 및 가치향상을 위한 김포 도시숲'
- 12조(최응재 외 4명) '김포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레인가든 도입 제안'
- 13조(박정웅 외 4명) 'King for Local Food'
- 14조(김기욱 외 4명) '-Car +Walk 장기동 내 안전한 공유공간 방안'
- 15조(윤승용 외 3명) 'Stop! Shop and Stay 김포시 북변 5일장 활성화 방안'
- 16조(김충원 외 4명) '금빛나루 금포도 마케팅 전략'
- 17조(김다윤 외 4명) '출근을 부탁해-김포시 서울통근을 위한 수요대응형 버스 제안'

마지막으로 7월 초에 김포시를 방문하여 9개조로 최종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1, 2, 3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세미나 -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Private Development)

김경민 교수는 2010년 가을학기부터 공공민간협동개발 (Public-Private Development, 이하 PPD) 과목을 강의중이다. 2009년 서울대 부임 후 당시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PPD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가졌다. 2010년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의 문제점 (금융, 개발과정,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이익 충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업의 결과는 2011년 저서 '도시개발, 길을 잃다'를 통해 정리되었다.

이후 수업은 대규모 개발이 아닌 작은 개발, 그리고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공정하고 적절한 개발 실행 전략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PPD 수업의 전반부는 부동산 금융기법을 주 내용으로 하며, 수강생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운영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PPD 수업의 후반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공공민간협동개발 전략과 케이스, 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식 (비영리)커뮤니티 개발 전략과 모델을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공적 인센티브를 논한다. 요약하면,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금융+정책)을 통해 공공적 가치와 민간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고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강생들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우게 된다.

2012년 이후, 창신동을 사이트로 선정하였고 창신동과 동대문 패션타운 연관지역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PPD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김경민 교수는 2013년 초, 사회적 기업 'Urban Hybrid'를 설립하였고, 창신동에 창신Azit를 개소하여 수업 내용을 통해 나온 일부 결과물들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2015년 수업은 창신동에 소재하는 작은 교회를 대상지로 하여 1) 교회건물을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전략, 2)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적 사업타당성, 3) 사업타당성이 적은 경우,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적 인센티브에 대한 조별 과제를 수행하였다.



6월 중순 창신Azit, 기말 최종발표

도시·환경 국제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가 담당하는 도시·환경 국제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영문명: International Development Seminar/Workshop on Urban and Regional Environment) 과목은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적 시각에서 선진국과 한국, 개발도상국 등의 도시·환경문제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는 안목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이념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현재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인프라 부족 등의 도시문제와 오염, 재해 등의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함께 지난 50여년간 한국의 경험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K-model)이 전통적인 서구의 모델과 차별화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본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며, 내국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출신 국가에 따른 지식, 정보의 교류를 장려한다. 본 과목은 2014년 1학기에 '도시 지역계획 연구'라는 과목명으로 개설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두 학기에 걸쳐 1학기에는 세미나, 2학기에는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된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Central Java)에 위치한 마겔랑(Magelang)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계획적 문제의 대안을 탐구한 바 있다.

본 과목의 현장 실습은 '도시-환경 국제개발 워크샵' 교과목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2015년에는 네팔 서남부의 루판데히 지방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방문할 예정이다. 루판데히의 중심지인 시타르타나가르 지역은 부처의 탄생지로 유명한 '룸비니 동산'이 위치한 인구 6만 여명의 도시로서, 현재는 중소 제조업 및 농업이 주요 산업이나, 지리적으로는 인도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네팔의 무역 창구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다. 최근 네팔 정부가 인도와의 협정을 통해 시타르타나가르 지역에 바이라하와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무역도시로서의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장 답사는 학생 20여명과 환경대학원 교수 3인 (최막중, 김세훈, 김태형)이 참가할 예정이며, 1학기 세미나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가진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2학기 워크샵 수업을 통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스튜디오: Changi Business Park in Singapore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가 담당하는 도시재생스튜디오는 2년 전 환경조경학과에 신규 개설된 과목으로 구도심의 활성화, 도심 유희부지의 재활용, 낙후된 기반시설의 가치 증진을 위한 재생 전략과 디자인 접근을 다루는 스튜디오 수업이다. 이번 2015년 1학기 스튜디오에서는 싱가포르 SUTD대학 Lee Kuan Yew Centre for Innovative Cities, 국립산업공단(JTC), 도시개발공사(URA)의 초청을 받아 창기국제공항 주변의 유희 산업단지에 신생기업 육성단지과 다양한 디자인 실험공간을 제안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지인 '창기 지식산업단지(Changi Business Park)'는 JTC에서 가골 동부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9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66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로 국제공항, 엑스포단지, 지하철 노선, 신생대학 SUTD 캠퍼스와 인접해 있다. 그럼에도 대상지 북측 부지는 10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 아시아 도시들의 기업 유치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상지는 대규모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인근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둘러 쌓여 있어 보행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문화·소비·여가·사회적 교류 관련 공간이 없어 젊은 인재들이 요구하는 지식산업 전진기지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환경조경학과 학생 7명, 협동과정조경학 2명, 건설환경공학부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석박사생들이 3월 18일에서 21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비전에 대해 SUTD 및 URA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워크샵을 가졌고 JTC 사업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신생기업 인큐베이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대상지에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국가비전, 미래 먹거리와 지식산업의 현황, 대상지의 문제와 가능성, 재생의 단계적 접근과 도시설계, 가로환경 조성과 개별 건축설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6월 15일 최종크리틱을 가졌다. 학생들의 작품은 올해 7월 싱가포르 국토부(MND)에서 주관하는 'Urban Sustainability R&D Congress'에 전시될 예정이다.



환경설계 스튜디오 : HYPER/HYPO-SEOUL 고밀도(Density)와 비형식(Informal)의 도시

서예례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가 담당하는 환경설계 스튜디오는 이번 학기 관악구 삼성동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격동적인 문화적·사회적 근대화, 그리고 정치와 재계의 변이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 변동하고 있는 아시아의 도시들은 기존의 서구적 도시 담론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특히 높은 인구밀도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결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아시아에서는 사람과 도시가 반응하는 인터페이스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만의 독특한 도시적 현상들을 창출하고 있다. 아시아 특유의 권력, 자본, 그리고 정보 체계는 초대형 프로젝트, 고밀도(density)의 공간들과 비형식(informal)적 도시를 동시에 급조하고 있으며, 이는 독특한 도시환경, 공간 유형과 사용 행태, 경제적·정치적 행위자 관계망들을 생성하고 있다.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도시인 서울 메트로폴리스 지역은 고밀도와 비형식의 특수성을 지닌 전형적인 아시아 도시이다. 본 스튜디오는 아시아 어바니즘의 한 사례로 서울의 어바니즘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기계적 논리 속에 형성되었던 서울의 주거, 상업, 교육, 녹지, 공공 공간 프로그램의 관계, 부동산적 도시개발 논리와 분열된 사회 그룹,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독거노인 증가 등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생성된 비형식적 공간들과 공간적 메커니즘의 맵핑을 통해, 고밀도와 비형식적 도시공간 전략들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에 있어 기존의 정치·경제적 재개발, 개발 논리에 대안적이고 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적 가능성들을 탐색하였다.



스튜디오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서울 주거공간 유형에 있어 고층/중저층, 평지/구릉지, 정비/미정비, 주거중심/주상복합으로 구분되는 16개의 500m x 500m 사이트들을 선정하여 이의 도시조직과 공간논리, 행위자 관계망과 비형식적 공간 전략들의 맵핑·분석을 통해 16개 공간유형들에 있어 고밀도와 비형식의 방법들을 비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 단계에서는 관악구 삼성동(신림6동, 10동) 지역에 대한 16개의 대안적 도시설계, 계획 시나리오들을 발전시켰다.



↑ 환경조경학과 이지훈(석사과정) 작업내용, ↓ 스튜디오 중간발표
- 본 연구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의 아시아도시건축 아카이브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 성곽마을 부암동의 변화 모색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진행하는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는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이슈들에 실천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수업이다. 2015년도 1학기 수업에서는 부암동 성곽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소의 컨텐츠,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3개월간 부암동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부암동이 지닌 잠재적 자원 발굴하여 미래의 부암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암동에서 진행된 '부암데이'는 총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5월 23일과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낸 둘러앉은 밥상"이다. 부암동에는 40년, 50년간 살고 계신 터줏대감들도 많지만 부암동이 좋아 모여든 젊은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암동을 꾸려나가기 하지만 소통, 교류의 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러앉은 밥상'은 마을 터줏대감과 새내기가 둘러 앉아 부암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함께 부암동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요리를 소통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잘 할 수 있는 트렌디한 요리와 노년층의 세월과 기억이 담긴 요리를 공유하였다. 또한 커뮤니티키친 활동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자신의 요리에 담긴 스토리, 느낀 점을 서로 기록하여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핸드메이드 부암키친스토리 레시피도 만들었다. 젊은 층, 노년층 1인가구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서로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치유하며, 나아가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부암동에서 나는 물품과 이야기를 전달한 부암 과일트럭"이다. 부암동은 인왕산, 북악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여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이동하는 채소 트럭, 과일트럭의 역할이 다른 곳 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암 과일트럭은 부암동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부암동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이야기와 상품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홍보수단 및 수익수단으로, 트럭아저씨에게는 과일 외 다른 수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메이드 인 부암'이라는 브랜드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부암동에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부암 과일트럭은 부암동에서 만들어진 상품 외에도 이야기와 서비스 등을 전파하는 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소통과 부암동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의자 프로젝트"이다. 부암동은 빼어난 자연 경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예쁜 정원 등으로 가득한 마을이다. 하지만 부암동은 특성상 골목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앞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장소의 부재는 동네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 서로 단절되게 만든다. 따라서 학생들은 의자라는 수단을 통해 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만나고, 부암동의 자랑거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부암동 내에 다섯 곳을 선정하여 보금자리(부암동 주민들의 정원과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공간), 소담소담(부암동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매개의 공간), 장기마당(놀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을 이끄는 공간), 우리의자(부암동 주민들이 모이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 책 읽는 의자(자연이 품은 마을에서 즐기는 자연과 문학이 있는 감성공간)라는 테마를 부여하였다. 의자가 생긴 후,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즐기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지속되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약 3개월간 진행된 본 수업의 결과물은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부암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과 어우러져 보다 아름답고 활기차게 서로 소통하는 부암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환경조경학과 과제전

지난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환경대학원 글로벌 홀에서는 환경조경학과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 개최식에는 환경조경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015년 1학기에 진행된 환경조경학과 수업 중, 광역조경계획, 도시재생스튜디오, 조형 공간·형태 설계 스튜디오, 환경설계 스튜디오,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경관분석세미나, 문화 환경 세미나, 그리고 도시설계 협동과정의 도시설계세미나가 초청 전시되었으며, 예년에 비해 설계 주제, 대상지 유형이 다양해졌고 설계 완성도 또한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시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환경대학원 306호 글로벌 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015년 여름학기 DMZ GLocal Fair

통일기반을 위한 환경대학원 주최 DMZ 글로벌 페어(DMZ GLocal Fair)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8월 10일에서 14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철원 DMZ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MZ가 지니고 있던 HMZ(Heavily Militarized Zone)라는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DMZ의 잠재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일시대를 선도하고 통일의 과정에 순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DMZ에 대한 장소를 '일상적 공간',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글로벌 페어를 통해 DMZ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서 DMZ의 장소성을 강화하며, DMZ를 미래 창조공간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DMZ 글로벌 페어에서 수행될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커뮤니티 디자인/빌드 워크숍”에서는 ‘접경지역 마을복원’을 주제로 DMZ 일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환경대학원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젊은 군인들이 ‘복무하고 싶은 병영 만들기’를 목표로 DMZ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주변 환경을 친환경적이고 보다 활력있게 조성하기 위한 병영 설계 및 조경 스튜디오를 현장에서 진행한다. 두 번째, “DMZ 브랜드화를 위한 일상화 장소 발굴”로 오랫동안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온 DMZ를 매우 단순한 일상화 측면에서 발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DMZ의 일상화’를 주제로 DMZ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점을 발굴·지도화해 나가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예컨대 DMZ 일대의 명소 발굴, DMZ 환경미화, DMZ 데이트 코스, 의식주 측면에서 일상화 사업을 수행한다. 세 번째, “DMZ 브랜드화를 위한 마을주민의 일상적 삶의 행태 조사”는 오랫동안 DMZ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마을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고유성과 독특함을 찾아내고 이들 삶의 특징을 파악하여, DMZ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서, 행태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네 번째, “DMZ 거주학생을 위한 교육 멘토링”은 철원군 3개 거점(동송읍, 갈마읍, 김화읍)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전문가 특강, 환경대학원생들과 일대일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사전에 수립하고, 학업 및 진로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글로벌 페어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및 관련학과 재학생 3개 팀으로 총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그동안 지극히 비정상적인 DMZ 접경지역이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DMZ가 통일을 위한 완충지대(buffer)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통일 이후 DMZ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DMZ 일대는 상당히 독특한 공간 환경을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DMZ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DMZ 현지에 환경대학원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미개척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환경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환경대학원 DMZ 캠퍼스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게 되며, 마지막 날 각 팀별 성과를 발표를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DMZ 캠퍼스에서 활동한 스튜디오 작품 및 모든 활동내용은 책자로 발간되며, 각 팀의 성과물이 디지털화되어 기록될 예정이다.

2015년 2학기 실무 인턴십 과목 개설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새롭게 개설한다. 환경대학원 전 학과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과목은 매 학기 개설되며,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면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국외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 필요), 최소 160시간 이상(일일 8시간*20일, 약 1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인턴십 과목의 수강신청은 인턴으로 근무한 이후 그 다음 학기에 할 수 있으며, S/U로 성적을 부여한다. 성적은 인턴십 기관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평가서와 학생의 보고서를 근거로 학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행사/학술/연구

환경대학원 행사

2015 GSES Career Day 행사

2015년 5월 27일, GLocal Hall에서는 환경대학원 주최, BK21Plus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과 BK21Plus 기후변화적응전략팀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GSES CAREER DAY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도시계획, 환경, 교통, 조경, 도시설계와 관련한 23개 외부기관에서 참석하여 약 110명의 환경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특히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참여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취업을 막연하게 생각하던 학생들은 구체적인 취업의 정보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기관은(가나다순)간삼건축, 그린에코스, 녹색기술센터,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서울연구원, 에코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한킴벌리, 일로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경봉, 제일모직 조경팀,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한아도시연구소, 해안건축사사무소, 현우그린, CBRE Korea, DTZ Korea, JLL Korea, LG CNS까지 총 23개이다.

1부 행사에서는 CAREER DAY에 참석한 모든 내외빈에 대한 환영사와 참여기관 및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2부에서는 각 참여기관별 부스를 세 개의 홀에 마련하여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상담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3부 행사에서는 옥상정원에 다과를 마련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이 교류할 수 있는 해피아워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취업을 확정 짓거나 인턴십의 기회를 얻었고,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CBRE Korea 인턴십 채용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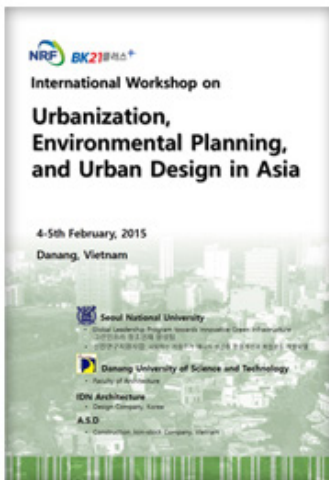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2015년 5월 27일에 CBRE Korea와 인턴십 채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상호호혜적 기반위에서 인턴십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대학원 재학생에게 CBRE Korea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K21 Plus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

· 국제교류 공동워크숍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은 2015년 2월 4일 베트남 다낭 과학기술대학(Dan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건축학과에서 'Urbanization, Environmental Planning, and Urban Design in Asia'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다낭 과학기술대학 건축학과는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과 동남아시아 도시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한 연구 기관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는 '아시아 도시들의 도시설계와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교육과 연구경험 소개하고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조시은(박사과정)은 2014년 1학기에 환경대학원과 인도네시아 디포네그로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국제협력 설계스튜디오의 교육학적 가치를 고찰한 'Integrating environmental hazard mitigation into Korea-Indonesia Joint Urban Planning Studio Pedagogy'를 발표하였으며, 베트남 다낭의 도시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원세형(박사과정)은 'Effects of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people, space and land use: pre-and post-2003 survey in Danang, Vietnam'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유영수(박사과정)는 서울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연구로서 'Transformation in low-rise residential area in Seoul'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다낭 과학기술대학 측에서는 베트남의 도시환경 하에서 새로운 주거유형을 연구한 'Sustainable and affordable housing for Danang, Vietnam'과 다낭시가 현대적인 도시로 변화하기까지의 개발 과정을 다룬 'Danang City: The history & the orientations of development'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 겨울학교 개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BK21Plus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에서는 학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월 26일 겨울학교를 개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설문을 통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공간분석기법과 영어논문작성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간분석기법은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재승 교수에 의해 공간 분석 프로그램인 GeoDa를 이용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며, 영어논문작성법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봉민아 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 BK21 Plus 커리어 데이 개최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에서는 2월 24일, 학생들의 졸업 후 다양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커리어데이를 개최하였다. 사업팀장인 류영렬 교수의 환영인사 및 연사소개에 이어 국토연구원의 김명수 박사, GS 건설의 조영철 부장,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이명균 교수에 의해 기관 소개와 주요 업무 분야, 원하는 인제상 등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이어진 그룹별 토의 시간에는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전략과 면접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해외학자 초빙강연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에서는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연구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해외학자 초빙강연을 개최하였다. 그린인프라는 미시적으로는 도시설계와 조경계획에서 거시적으로는 생태시스템과 기후변화를 다루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이다. 먼저, 기후변화를 고려한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는 2015년 2월 12일에서 13일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James H. Thorne 박사에 의해 'Urban growth modeling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이라는 주제와 'The use of greenprints for improving regional planning'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3월 9일에는 싱가포르 SUTD(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의 김형규 박사에 의해 '바람을 고려한 기후 순응적 도시설계'라는 주제로 도시설계분야에 있어 바람과 도시형태의 관계를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경의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연구한 측면에서는 3월 5일에 미국 필라델피아 Andropogon Associates의 대표인 Yaki Miodovnik에 의해 'Shouldn't our landscapes do more than look good?'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창조를 위해 생태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조경전략을 연구한 사람으로 조경의 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기능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조경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으로는 3월 13일에 스웨덴 Stockholm Resilience Centre의 교수인 Thomas Hahn 박사에 의해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insurance value of ecosystems as a tool to assess climate change impact and adaptation'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가 생태환경의 가치를 다루는데 있어서 경제학에 의해 효율성을 초점을 두고 가치화를 했다면, 앞으로는 보합가치를 적용하여 가치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 제10차 콜로키움

2015년 4월 14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이양원 교수(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를 초청하여 '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기후·생태·환경 분야의 과학적 지식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양원 교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공간정보분석의 전문가이다. 그는 리모트 센싱을 이용한 공간자료의 분석과 해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대기환경, 강수·태양광·기온 등의 기후환경, 식생·토질 등의 생태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지구온난화, 해빙, 온실가스 배출 등의 도시 및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 제11차 콜로키움

2015년 4월 22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미국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 세계 유수대학의 박사 및 박사과정생 9명을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 날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발제를 진행한 박지성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박사과정)은 'Will we adapt? Temperature shocks, labor productiv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으로, 극도의 더위(extreme heat)에 대한 적응 능력을 미국의 주 단위로 실증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극도로 더위가 심한 주 (예)Houston, Atlanta등)에서 더위에 대해 훨씬 더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주의 열의 파장(heat wave)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급여의 대리변수로 측정했을 때, 90°F 기준으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급여의 0.091%가 하락한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부연하였다.

이어 'Tax incidence under imperfect competition: An application to retail fuel'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Samuel Stolper(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박사과정)는 스페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료 세금 도입 전후로 과점적 연료 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총 14번의 세금 조정이 있었고, 이는 브랜드 주유소의 가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85%로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스페인의 연료 세금 제도는 소비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Brown Lucas 박사(University of Oxford, Economics)는 'Use of big data in Obama's campaign'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대통령 재선 시 사용하였던 데이터 수집-이용 방법을 발표하였다. 그는 어떤 대리변수가 설명력을 가졌는지, 어떤 그룹을 타겟으로 잡아야 했는지를 설명하며, 당시 사용된 데이터 수집 방법의 예로 설문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설문 질문을 5개로 한정하여 전화를 걸어 데이터를 얻는 quick cal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SNS 데이터 수집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Urban Breeding Ground

2015년 3월 11일, GLocal Hall에서 환경대학원 학생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스위스 취리히공과대학교(ETHZ) 도시설계 교수이자 KCAP 건축·도시 설계사무소 대표 Kees Christiaanse의 강연이 있었다. Christiaanse 교수는 자신이 실제로 진행해온 도시계획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도시계획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생동감 있게 들려주었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Montpellier)의 기차역 주변 도시개발 사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복합용도개발 사례, 영국 런던 올림픽 이후 구조적 개발,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Hafen City) 기존 항구 지역 재개발 사례, 해안가 지역인 중국의 선전(Shenzhen)의 사례 등 KCAP에서 진행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본 강연에서 Christiaanse 교수는 특히 점진적 성장(incremental growth)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는 대규모 개발보다 계획 및 개발을 분산화 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실제 계획을 하던 당시,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조율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강연을 마치고 가졌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Christiaanse 교수는 '도시계획가는 중재자'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번 특강은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된 실제 도시계획 사례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장래 도시계획가로서 추구해야 할 자세와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도시녹지의 새로운 과제와 대상

환경조경학과는 '한국과 일본 도시녹지의 새로운 과제와 대상'이라는 주제로 6월 6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본 콜로키움은 효고현립대학 녹지환경 경관관리과 Hirata Fujio 교수의 강연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Hirata 교수는 1주제 '도시의 새로운 과제, 왜 지정관리가 필요한가?'에서 일본의 도시공원 관리 사례와 지정관리자 제도, 지정관리자의 활동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공원관리운영사 인정 시험제도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2주제는 도시 농업에 관한 것으로 일본 도시농업의 현황을 설명하며, 도시녹지로서 도시농업의 역할과 관리방안, 한일 도시농업 제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2회 교통연구세미나

2015년 3월 28일, 제22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학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2004년을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본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은 211편에 달한다.



제22회 교통연구세미나는 환경대학원 이영인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교통학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논문이 8편 발표되었다. 1부 순서로 김영돈(석사과정)의 '스마트카드 자료와 스트레스 지표를 활용한 버스 노선의 서비스 수준 추정' 외 3편의 논문의 발표가 있었으며, 2부 순서로 우상미(석사과정)의 '버스정류장 기반 통행발생모형 추정에 관한 연구' 외 3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논문발표 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임영태 박사(국토연구원), 한상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고준호 박사(서울연구원)가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이승봉(박사과정)의 '고속도로 사고등급별 교통사고 처리시간 예측모형 개발', 우수논문상은 장동욱(석사과정)의 '스마트카드 자료를 활용한 수도권 노선버스의 기능별 분류'가 선정되었으며 소정의 교통동문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수는 교수의 폐회사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제36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5년 3월 9일에 '통행실태 조사와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제36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GRI 리서치의 이범신 대표이사가 강연자로 참석하였으며 장수는 교수가 콜로키움 진행을 맡았다.

이범신 대표이사는 다년간의 조사경험을 토대로 교통부문 교통수요 조사 시 조사감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였다. 조사수행은 조사의 개요, 조사설계 및 실시, 조사자료 검증,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의 다섯 개 단계로 진행되며, 조사는 조사원, 감독원, 자료처리요원, 연구원과 같은 인적요소와 설문지, 보기카드, 답례품과 같은 물적요소로 구성된다. 조사도구인 설문지 작성은 조사의 정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조사목적에 맞는 자료수집 수단을 찾고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범신 대표이사는 이어서 설문지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설문지 마지막에는 응답자와 조사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식별자료(identification data)를 넣는 것이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특히 중요하단데 이는 설문 응답자가 끝까지 설문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와 조사원이 책임감 있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입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필요정보 결정, 조사방법 결정, 개별문항내용 결정, 질문형태 결정, 개별문항 완성, 질문순서 결정, 설문지 완성의 단계를 따르며 각 단계에서 단어선택이나 질문의 배치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편집단계에서 문항과 지문의 폰트를 달리하여 설문지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 2부 순서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 중 실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최대한의 조사가능시간을 묻는 질문에 이범신 대표이사는 최대 30분까지 가능하며 적당한 사례가 있으면 유인의 동기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교통수요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의 RP조사보다는 소규모의 SP조사가 다양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을 수 있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여러 조사기관이 나누어 수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보수집의 비밀관성 우려에 대해 모든 조사기관이 동일한 설문지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보수집 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조사이론에서 실무까지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통행실태 조사에 관한 살아있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7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5년 4월 13일에 '비밀상적 단기간 집중수요 해소를 위한 레고형 교통시스템과 Business Model'라는 주제로 제37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박재현 박사가 당일 강연자로 참석하였으며 장수는 교수가 콜로키움 진행을 맡았다.

박재현 박사는 국가적 대형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둔 현시점에서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단기간 집중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시설이 행사 후 줄어드는 교통수요를 고려하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건설된 교통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레고형 교통시스템 연구에 착안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행사는 매년 1~2회씩은 개최될 예정이고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교통계획은 필수적 요건이지만 몬트리올 올림픽,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같은 이전 경험들은 국가 행사를 위한 과잉투자가 행사 이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박재현 박사는 비밀상적 단기간 집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레고블럭형 교통시스템 기술과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박재현 박사는 조립·해체 및 재사용이 가능한 조립식 모듈형 철도시스템은 일시적 통행수요를 해결하고 기존 교통망에 임시로 추가적 link를 제공하며, 단거리 지선개념의 교통체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제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경량 철도차량이 적정하다고 소개하였다. 레고블럭형 교통시스템은 대규모 행사 시 단거리 접근수단, 관광수요와 같은 계절적 수요대응, 지역축제와 같은 일시적 혼잡지역, 자연재해에 따른 교통단절시 긴급 통행복구와 같은 상황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 도로건설 방식과 모듈식 철도 사이의 편익을 비교해본 결과 건설 이후 30년간, 기존 방식은 유발수요에 따른 편익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크게 발생하는 반면 모듈식 철도는 설치비용보다 설치에 따른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나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레고블럭형 교통시스템이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재무적 가치창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사회연계채권 방식의 임팩트 투자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강연 후 토론 시간에는 강연과 관련한 질의 및 응답이 이어졌다. 레고블럭형 교통시스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박재현 박사는 레고블럭형 교통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전기, 기계, 인프라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로 하며, 특히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계획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레고블럭형 교통시스템의 개발은 새로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환경,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경관리 전공 학술활동

서울환경포럼 춘계학술세미나

2015년 4월 11일,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 2015년 춘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생태계 서비스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도원 교수, 장영기 회장을 포함한 총 30여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에는 특히 청주대 식물학과 재학생 3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교류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인간문화'라는 제목의 이도원 교수 특강으로 시작하여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권혁수 동문(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의 국내외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이어 박찬열 동문(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전통지식과 풍수원리'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송동하 동문(주E&HC 대표)은 'IoT 기반 생태계서비스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민호 동문(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응경 동문(주터알 대표), 박은진 동문(국립생태원 실장), 임홍탁 동문(KAIST 교수)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약 3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친 후 환경관리 동문 및 재학생은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5대 기후체험, 세계개미탐험전)을 관람하였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학술활동

제36회 국제환경원격탐사 학술대회 논문발표

환경관리전공 배소연(박사과정),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 Joerg Mueller(Bavarian Forest National Park, Germany)는 2015년 5월 11일에서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6회 국제환경원격탐사 학술대회(3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에서 ‘Modelling avian diversity with LiDAR-based analysis of forest structure (Vegetation volume explains contrasting patterns between bird species diversity and functional diversit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양호 유역 산림에서 항공 LiDAR로 조류 다양성을 예측한 결과, 식생 부피가 다른 식생 구조 특성보다 조류 다양성을 가장 잘 설명하였고, 조류 종 다양성과 기능 다양성은 각각 식생 부피와 상반된 상관관계를 보여, 산림 관리에서 개활지, 중밀도, 고밀도의 산림을 다양하게 공존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정다현(석사과정), 구경하(석사과정), 이성욱(석사과정)은 2015년 4월 25일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2015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에서 ‘프리미엄 아웃렛이 인근 상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이 입점하게 되면서 기존의 중소형 상가들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전공 조유리(석사졸업), 배소연(박사수료), 이응경(박사졸업), 이민주(석사과정),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2월 26일에서 27일까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IT에서 열린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산림에서의 꿀벌 채이활동과 환경요인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DAR와 GIS자료로 측량한 소양호 유역 산림의 환경요인

한국환경정책학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전공 이동길(석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2월 25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국내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 현황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하여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담당자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상

환경조경학과 구자현(석사과정), 박이량(석사과정), 윤예화(박사과정),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5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노인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옥외활동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 저소득 노인밀집지역을 사례로, 근린환경에서의 노인의 옥외활동을 Multi-Methods 방식(관찰-인터뷰-인지지도)으로 분석하여 저해유인

열린 한강, 희망의 한강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강윤주(석사과정),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 “열린 한강, 희망의 한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내 손으로 한강을 디자인하다(Touch and Appear the S.I.M. City)’라는 제목으로 2015년 4월 30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아파트 너머 한강의 경치를 감상하며 시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 “우리나라 국토·도시 이야기” 출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발간위원회(위원장 : 양병이, 위원 : 김성수, 성종상, 이영성, 김윤제, 한영주, 진교남, 집행위원 : 최상철, 김병린, 우명규, 노용희, 윤혜정, 류동주, 윤진우, 유원규, 김안제, 고건, 안동만, 정영선, 유병림, 권태준, 오취영)에서는 “우리나라 국토 도시이야기, 태동기”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나라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중 주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그 사업에 관여했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동문들과 그 당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와 강사들의 경험 및 비화를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 국토·도시계획의 기원, 무허가 주택단지의 철거 및 도시개발, 급속한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인구 분산정책, 산림녹화 사업과 조경분야의 대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개원과 환경학, 조경학의 태동 등 국토 및 도시개발사업을 다뤘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우리나라 국토·도시 이야기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발간위원회 / 보성각 / 2015 / 320쪽)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015년 상반기 심포지엄 : 공지(Vacant Land)의 재발견



2015년 6월 5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공지(Vacant Land)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시대에 공지를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환경관리 분야의 다학제적 관점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희연 교수(환경계획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 심포지엄의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장)의 사회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공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근린 재생자원으로서의 유휴공간, 현황과 과제', '지방도시에서 주택정책의 활용이 지역경제효과에 주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연구'의 4가지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어진 제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김태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조세환 한양대학교 교수,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정근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찬호 교수(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공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도시지역 공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찬호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인구학적으로는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지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과도하게 추계된 인구에 기반한 토지의 공급이 공지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공지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물가 상승기에는 토지를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고 공지로 남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로 조잡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법적으로 규제해놓아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는 개발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어 공지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이렇게 형성된 공지는 주변 주거환경과 지역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공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추구하여야 할 주요 가치를 강조하며 공지를 저소득 노령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임유경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유희공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 내 유희공간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잠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유희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국내 도시에서 유희공간이 발생하는 양상은 크게 공공시설의 공급과 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 내에 점적으로 유희공간이 발생하는 경우, 구도심 공동화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유희현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지역 산업 쇠퇴에 따른 부동산 방치가 일어나는 경우, 노후불량 주거지에서 공폐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법제도적 요인이 유희공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의 쇠퇴를 조장하게 된다. 임유경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유희공간 발생 특성과 지역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지역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유희공간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장소중심적 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유희공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희공간 현황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현황 관리와 사업 공조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구성, 유희공간 문제의 공공 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유희공간의 철거와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방안 마련, 유희공간 발생 양상과 거주자 특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내 유희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실시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히라타 후지오 교수(효고현립대학 녹지환경 경관관리과)는 '지방도시에서 주택정원의 활용이 지역경제효과에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말머리에 과소화 문제, 규제개혁, 경제 활성화, 식량안전 등 일본 사회의 최근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같은 위상으로 지역재생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재생의 임무는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통계자료를 들며 인구 과소화와 쇠퇴도시 문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문에서 히라타 교수는 과소화 및 쇠퇴도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지역의 개인정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정원 외에 전통적인 농가의 앞마당 정원(센자이前庭라고 함)을 활용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고유성, 역사성을 설명하며 도시 관광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외국인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졌고 관광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 사업으로 오픈가든 사업, 녹지은행 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오픈가든 사업이란 농가의 원예 산업과 개인주택의 정원을 연계한 이벤트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녹지은행은 지자체가 중개자가 되어 유희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해당 토지의 이용권을 확보한 뒤, 각 토지를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NPO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지역 내 오픈 스페이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례로 지바현 카시와시가 실시하는 '카시나와 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상의 녹지를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공지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업으로 실천해 볼만한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조경 분야에 시사성이 큰 사례라고 하겠다.

네 번째 발표자인 전의찬 교수(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지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전의찬 교수는 공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확대, 에너지자급률 향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전 교수는 사례연구를 통해 공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지면적을 파악하고, 사례지역에 적용할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도시농업, 바이오연료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공지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1,284,000kgCO₂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공지의 태양광, 도시농업, 바이오연료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강동구의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1,288,362kgCO₂로 2014년 기준으로 강동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4.08%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전의찬 교수는 공지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광중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홍미영 구청장(인천광역시 부평구), 김정곤 실장(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 유재운 센터장(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세환 교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김현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태형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패널 참여로 이루어졌다. 먼저 홍미영 구청장은 부평구의 공지의 현황과 현장에서의 고민을 발표하며 현장밀착형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정곤 실장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례를 통해 공지에 있어 저성장, 녹색성장이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유재운 센터장은 공지의 개념 정리에 대한 필요성과 공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공유경제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조세환 교수는 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지를 새로운 용도를 기다리는 가능성을 가진 용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수 교수는 공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구체적 활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도시재생이 결합되면 좋은 도시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뒤이어 김태형 사무관은 공지가 도시재생정책과 긴밀하게 관련성을 지닌다며 공공의 개입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환경계획학과 한수경(박사과정)은 공지를 채우는 방안뿐만 아니라 비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심포지움을 마무리지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nu.ac.kr> 에서 VOD 콘텐츠 서비스로 찾아 볼 수 있다.



메가시티 서울의 미래연구와 융복합 관점

2015년 4월 3일, 환경계획연구소는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센터장을 초청하여 “메가시티 서울의 미래 연구와 융복합 관점”이라는 주제로 융복합 집담회의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융복합 집담회는 날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융복합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로 시작되는 행사이며, 이날 집담회는 이희연 환경계획연구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변미리 센터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 특성상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융복합 관점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서울을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서울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시기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고도성장 시기에 놓쳤던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쌓여오다 터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지적 시점과 영역을 넘나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변 센터장은 설명하였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문제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협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또한 미래연구는 단순히 예측(forecasting)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목적의식과 의지가 반영된 전략적 사고(foresight)이자 선제적 연구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변미리 센터장은 미래 연구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되고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일종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미래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융복합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변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의 미래연구 진행 사례와 우리나라 미래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며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넘나드는 관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를 공부하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통합적이고 융복합적인 시각을 기르고 훈련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강의를 마쳤다.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를 위한 융복합 연구방법론

환경계획연구소는 2015년 5월 1일,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승일 교수를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를 위한 융복합 연구방법론”이란 제목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승일 교수는 융복합이라는 것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분야의 교집합을 찾아내서 그 교집합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집담회에서는 특히 사회,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융복합 연구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제 사례로 이승일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학, 도시행정학, 환경공학, 교통공학, 공간정보공학의 5개 분야가 모여서 만든 융복합 연구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는 통합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저탄소녹색도시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크게 도시행정학과 도시공학이 정책개발 부문, 환경공학과 교통공학 및 공간정보학이 기술적인 모델개발 부문을 담당한 연구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합모델을 개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시스템을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작업,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도시, 더 나아가 아시아로 확대하여 보급하는 단계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승일 교수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시뮬레이션 과정을 예로 들었다. 이는 수원역과 행궁동 사이에 계획 중인 노면전차로 인해 승용차 이용이 줄면 탄소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올지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와 노면전차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집담회에서는 융복합 연구의 어려움과 해결방안도 다루어졌다. 위 사례에서도 표준형 도시통합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융복합 시스템에서 계속 공동의 목표를 유지해간다는 것이 어려웠으며 융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 목적을 관철시키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승일 교수는 제도적인 연계 마련을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IT와 인지과학의 통합

2015년 6월 4일,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미디어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과 함께 "IT와 인지의 통합"이란 제목으로 집담회를 가졌다. 노소영 관장은 어떻게 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메이커 문화운동과 도시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들려주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강연에서는 전 세계의 메이커들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그 중 먼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IAAC란 건축학교를 통해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엿볼 수 있었다. 러시아의 Strelka Institute for Media, Architecture and Design 역시 모스크바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창의적이고 젊은 인재들이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뒤이어 미국 사례들이 이어졌다. 노 관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지역개발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인재가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브루클린의 Dark matter manufacturing은 자발적으로 인재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플랫폼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창의적일 수 있다는 철학을 지닌 스탠포드 대학교의 D. school(Institute of Design at Stanford)도 소개되었다. 이곳은 끊임없는 수정을 통해 서로 다른 학과, 서로 다른 학교 간에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합시키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소영 관장은 이러한 메이커들이 집결하는 세계적 행사로 메이커페어를 언급했다. 메이커 페어는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철학을 지니고 도시단위에서 열리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5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산 마테오에서 있었던 메이커페어 십주년 행사, 대만 타이페이시의 5개 창의공간, 중국 상하이의 신천지에서 개최된 메이커 페어가 그 예로 언급되었다.

노소영 관장의 이번 강연은 이와 같이 도시계획에서 문화와 예술, 메이커들과 도시를 함께 유기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는 도시계획에서도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환경계획연구소 Field Walk 프로그램

이태원 경리단길 일대 답사

2015년 5월 12일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제7회 필드워크로 이태원 경리단길 일대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손용훈 교수(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와 양희은(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의 안내를 받아 재학생 20여명이 함께 다녀왔다. 녹사평역에서 시작한 답사는 경리단길과 장진우 골목으로 최근 유명해진 회나무로, 제일시장을 거쳐 한남동 이슬람사원과 계단장이 열리는 우사단길 순으로 이어졌다.

경리단길이란 이름은 이태원2동 회나무로 초입에 위치한 육군중앙경리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태원2동에는 한국전쟁 이후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군인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경리단길에 창조계급이 유입되면서 디자이너 및 건축가의 작업실을 비롯하여 갤러리, 카페 등이 생겨나고 급격한 상권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가는 모습을 경리단길 답사를 통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우사단길의 경우, 청년장사꾼을 비롯하여 청년창업가들이 모여 '우사단'이란 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홍보창구인 계단장이 열리는 곳을 답사하여 우사단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답사일정을 마친 후, 우사단길에 위치한 음식점 '이태원 슈퍼마켓'에서 이번 답사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마무리 지었다.



한강에서 한강 읽기

2015년 6월 25일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제8회 필드워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원한 강바람을 쐬 수 있는 한강으로 다녀왔다. "한강에서 한강 읽기"라는 주제로 주최한 이번 필드워크는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안내로 이루어졌다. 보트를 타고 선상에서 한강일대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필드워크는 성산대교 부근 망원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시작하여 잠실대교까지 돌아보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전상인 교수 및 환경대학원 재학생 등 총 17명이 참여한 한강 답사는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에 접어드는 기간에 실시되어 유독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답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배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도시의 풍경들을 직접 접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후 망원 선착장 부근으로 이동해,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교수동정

신임교수 부임



서예레 교수가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신임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예레 교수는 2014년 2학기부터 환경조경학과와 도시설계협동과정에서 '환경설계 스튜디오,' '환경설계와 디지털 미디어,' '도시설계세미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서예레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디자인대학원(GSD)에서 건축석사(MArch I)를 취득하였다. 이후 8년간 뉴욕 와이즈/만프레디: 건축/조경/어바니즘(Weiss/Manfredi: Architecture/Landscape/Urbanism)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세계최고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베로니카 그린 도시설계상(Veronica Green Prize in Urban Design)을 받은 미국 씨애틀의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과 2011년 시카고 아나티움 미국 건축상(Chicago Anatheum American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뉴욕 버나드 대학교(Barnard College) 디애나 센터(Diana Center)의 주 프로젝트 건축가로 활동하였다. 2009년부터는 도시지형사무소(Office of Urban Terrains)를 설립하여 그리스 아테네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우크라이나 키예브 도시조경 마스터플랜, 미국 뉴로셸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등 여러 도시건축설계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3년간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건축학과 전임강사로 도시건축설계, 도시환경세미나, 건축이론세미나, 디지털 미디어 등을 강의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뉴욕시티대학교(City College of New York),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버나드/컬럼비아 대학교(Barnard College/Columbia University)에서 도시설계, 건축을 가르쳤다. 서예레 교수는 남북한의 평행적 도시건축에 대한 연구작업으로 2008년 그라함 재단(Graham Foundation), 그리고 2012년 로치 재단(Rotch Foundation)의 연구지원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황금사자상을 수여한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건축전 한국관의 '한반도 오감도' 전시의 참여작가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대 유망선도연구자 지원금을 받아 '파라토피아: 남북한의 경쟁적 도시환경건축 비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의 아시아도시건축 큐레이터로서 아시아 도시의 고밀도와 비형식적 도시조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예레 교수는 연구로서의 디자인(design as research)을 가르침으로써 디자인과 디자인 연구의 행위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간과 환경을 다루면서 연구, 실무, 정책 등 다양한 행위력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환경대학원이 한국의 도시, 조경,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촉진제(facilitator)가 될 수 있는 지식, 행위구조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생각이라고 한다.



김태형 교수가 환경계획학과 도시·교통·환경 융복합 전공의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부임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설계'를 담당하였으며, 2학기부터는 '도시·환경 국제개발 워크샵', '지속가능교통론', '도시 및 환경정책 세미나: 도시·교통·환경 융복합'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김태형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문학사(지리교육),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환경관리전공)를 받았고, 박사학위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조지아공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건축대학에서 2013년 12월에 취득하였다. 박사학위과정 중에 애틀랜타시(City of Atlanta) 계획국, 조지아주(State of Georgia) 교통부,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부임 전에는 킹파드석유광물대학교(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and Minerals) 설계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조교수로 강의 및 연구를 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이용-교통-환경 간 상호작용이다. 우선 토지이용-교통 간 관계와 관련해서, 스프롤, 압축도시, 스마트 성장,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등 갖가지 토지이용 패턴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및 토지이용-교통 사이의 역관계(예: 대중교통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두 번째로 교통-환경 상간관계와 관련, 비동력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등)의 지속가능성 및 비동력통행의 설명변수, 전기차를 비롯한 대안수단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기술개발이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셋째로 토지이용-환경 간 관계에 있어서 토지이용이 환경질(대기오염, 열섬현상 등), 에너지이용 및 대중보건(과체중, 비만, 만성질환 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주제들을 분석하는 계량적 방법(GIS 및 통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계획이론의 실무 적합성을 분석하여 계획교육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사를 토대로 장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도시, 교통,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할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요구되는 이론, 방법, 덕목을 갖추도록 교육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교수동정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교류지원사업'하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건강, 보행만족도에 대한 두 편의 SCI급 논문을 출판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조직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담은 SCI급 논문을 출판했으며, 최근 한국연구재단 '인문저술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도시설계 관련 저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 Kim, Saehoon and Ryu, Youngryel. 2015. "Describing the spatial patterns of heat vulnerability from urban design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Ecology*, 22, 3: 189-200.
 - Kim, Saehoon, Park, Sungjin, Lee, Jae Seung. 2014. "Meso- or micro-scal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pedestrian satisfac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30: 10-20.
 - Kwon, Youngsang, Jeon, Bonghee, and Kim, Saehoon. 2015. "The seventeenth-century transition of Seoul's spatial structure to functional pragmatism."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4, 2: 419-426.
-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이재혁(박사과정)과 함께 2015년 농촌계획학회에 '평창 마하생태관광지의 주민 주도 운영 과정과 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주관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시설운영을 주민단체에 이양한 평창 마하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운영권을 주민에게 이양하며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5월, Biogeosciences 저널에 'Comparison of UV-VIS and FDOM sensors for in situ monitoring of stream DOC concentration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는 이은주(박사과정), 유규연(석사 졸업), 정윤아(석사 졸업), 김기욱(석사 과정) 학생이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3월 24일, 25일 양일간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녹색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주의 국제협력부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인터내셔널 (Baden-Württemberg International)이 주최하고 이석정 교수와 카를스루헤 공과대학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 바탕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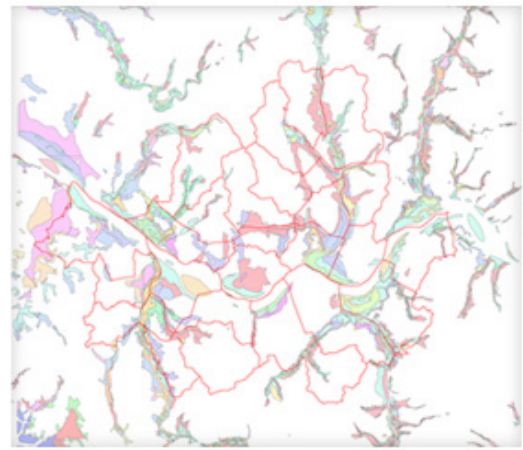
특히 지난 몇 년간 이러한 개념이 신도시 건설과 건축 설계뿐 아니라, 기존의 공간에서도 어떻게 실현될 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건축물 재생을 위해 소단위 필지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도구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석정 교수는 첫째 날 행사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녹색도시: 문제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번 컨퍼런스에는 에너지 산업, 환경 기술, 도시 설계, 건설 산업 및 건축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가 SCI급 저널인 Transportation Letters에 게재한 논문 "Comparative analysis of trip generation models: results using home-based work trip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가 이 저널의 최근 12개월간 다운로드 횟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해당 논문은 대학원생(정동재, 김재경, 강태석)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서, 통행량 추정에 사용되는 통행발생 모형들의 예측력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월, "국가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국토계획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5월 20일에는 인류문명연구회에서 "21세기 문명과 물의 사회학", 5월 28일에는 서초구 행복도시 아카데미에서 "오감의 도시계획", 6월 4일에는 서울시 시민아카데미에서 "도시와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전상인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조선일보 "조선칼럼, the Column" 고정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 **조경진 교수**(환경대학원 부원장)는 2015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nternational Urban Parks Conference: Greater & Greener 2015에 참석하였다. 도시공원 관련 민간조직인 City Park Alliance에서 주관한 이 행사의 금년 주제는 Innovative Parks, Vibrant Cities였다. 조 교수는 International Forum에서 'New Urban Park Projects in Seoul'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2015년 5월 29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창설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개발 특성을 평가한 'K-City'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Wybe Kuitert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5년 4월 서울에서 열린 2015 ICLEI 세계 총회, 도시의 자연(Urban Nature) 포럼의 두 개 세션과 워크샵에 초청되었다. 첫 번째는 4월 11일, Regulating services: Blue-green infrastructure and Planning for Biodiversity and Water in the Landscape 세션으로 "Planning for resilience at landscape scale"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는 4월 12일, Planning for Biodiversity and Water in the Landscape 세션으로 "Landscape as a tool to biodiversity"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Wybe Kuitert 교수는 URBIO (International Network on Urban Biodiversity and Design) 워크샵에 참가하여 글로벌 도시 생물 다양성 연구 아젠다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 이후 URBIO-ICLEI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총회는 6개 대륙 75개국에서 온 2,5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지자체장, 도시계획가, 시민운동가, 과학자 등과 도시자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eoul river landscape map

상세한 내용은 <http://worldcongress2015.iclei.org/en/about/>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수인사

- 2015년 2월 2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최막중 교수**가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임되었다.
- 2015년 3월 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가 환경계획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5년 3월 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이영성 교수**가 환경계획학과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5년 3월 1일부로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가 협동과정도시설계학 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석·박사과정

2014학년도 2학기 졸업식

2014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2015년 2월 26일 목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46명(환경계획학과 35명, 환경조경학과 11명), 박사 13명(환경계획학과 8명, 협동과정조경학 5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학위자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이정현, 안은경, 김거중, 김시진, 서진원,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환경계획학과 홍보영, 환경조경학과 노초원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식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식 및 장학금 수여



2015년 3월 2일 입학식에서 재학생에 대한 2015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환경대학원에는 크게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 동문 장학금 등 총 네 가지 종류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故임길진 교수 기념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김영업 장학금이 있다. 이번 1학기에는故임길진 교수 기념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5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임혜연(박사과정)과 환경조경학과 민경훈(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미라보 장학금은 김병린 명예동창회장의 배려로 미라보건설에서 1993년도에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기탁해주시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이승원(박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청송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인 하늘마당을 관리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환경조경학과 조성아(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통학 전공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이송봉(박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며 이를 기준으로 수여자를 선정하였는데 환경관리전공 박민선(석사졸업)과 이미연(석사졸업)이 선정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과 학생회장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계획학과 구경하(석사과정), 박종문(석사과정), 이상미(석사과정), 이성욱(학생회장), 환경조경학과 김지현(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계획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전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박사과정 12명, 석사과정 32명으로 총 44명의 신입생이 참석하였으며, 총 3부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과 조교들의 학과 및 환경대학원 시설 소개, 수료요건 소개가 있었고, 2부에서는 7개 조로 나뉜 신입생들이 서로를 소개한 후, 교수님들과 동기 앞에서 학업계획과 포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낙성대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교를 나누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동계 워크숍

환경조경학과는 2015년 2월 24일에서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일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동계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환경조경학과 교수 및 조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42명이 참가해, 생태 조사, 연구와 전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생태원과 일제강점기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거리를 답사하였다.



봄맞이 정원 가꾸기 행사 및 사진 공모전

2015년 4월 8일,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에서 '봄맞이 정원 가꾸기 행사와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교직원 한자리에 모여 겨우내 잠들었던 하늘마당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덧발을 가꾸는 작업을 하였다. 6개 조로 역할을 분담하여 옥상정원과 82동 주변에 정원 가꾸기 작업을 진행한 결과, 봄기운을 가득 담아 한껏 정돈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제4회 환경대학원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뒤이어서 진행되었는데 10개의 출품작 중 장혁권(환경조경학과)의 'STARLIGHT'이라는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 작품으로 노재욱(환경계획학과)의 '무릉도원', 우수상 작품으로 공혜림(환경계획학과)의 '경칩', 감지아(환경조경학과)의 '시선', 조소현(환경조경학과)의 '82동'이 선정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2015년 5월 13일 환경대학원 스승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가 학생회 주관으로 환경대학원 2층 P&C룸과 관악학생 생활관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수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 노래를 한마음으로 부르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각 전공 별 신입생들이 유쾌하고 발랄한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스승의 날 행사 이후에는 관악학생 생활관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4개의 전공별로 O/X퀴즈, 짝피구, 전략 줄다리기, 단체 줄다리기, 미션게주 등 5가지 종목으로 진행된 가운데 환경대학원 구성원 모두가 열띤 응원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육대회 우승은 조경·도시설계전공이 차지하였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뒷풀이 장소인 낙성대 마포소금구리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스승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통해 여러 교수님을 비롯해 다른 전공 학생들과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학생회 활동



개강파티

2015년 3월 11일, 학생회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재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개강파티를 개최하였다. 신입생을 비롯한 환경대학원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성욱 학생회장의 진행으로 시작한 개강파티에서는 '초성게임', '몸으로 말해요' 등 게임을 통해 연신 웃음꽃이 피었다. 이를 통해 동기끼리의 단결뿐만 아니라 선후배간의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생회장 선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박정태입니다.

제가 2015~2016년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동물, 재학생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6월 8일에서 1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선거에 전체 유권자 167명 중 90명(투표율 55.7%)이 투표를 하였으며, 이중 82표(투표율 88.2%)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모든 환경대학원 학우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대학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과 조화입니다.

여러 동물들 그리고 재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통의 힘이 학생회에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대학원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주저 말고 학생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대학원내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각 전공끼리의 조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려의 양 바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환경계획학과(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관리, 환경관리), 환경조경학과(조경, 도시설계),

양 축의 화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환경대학원과 학우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대학원의 소통과 조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인지 모를 가슴 떨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내딛는 걸음이 아직은 다소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처음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꿈과 정열을 가지고 학생회장 직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학생회 임원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학생회가 나아가는 길을 따뜻한 시선과 참여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신임 학생회장 박정태, 오른쪽 전임 학생회장 이성욱>

환경대학원 옥상 양봉 프로젝트 '비콜로지: Be-ecology'

2013년 환경대학원 학생회 양봉부에서 시작한 바 있는 양봉 프로젝트는 그간 공백기가 있었지만 올 4월부터 다시 환경대학원 옥상 정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양봉 프로젝트는 현재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 팀 학생들이 프로젝트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원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인 '어반비즈 서울'의 지도를 받아 기존 관행을 따르기보다 양봉 방법 및 사용되는 약제, 기구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 양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단순히 양봉을 시도하고 부산물 수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성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올 9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양봉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환경대학원 캠퍼스 양봉을 알리고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캠퍼스 양봉의 확립을 위하여 프로젝트 팀원들은 도시양봉가 과정을 수료하였고 학내 구성원의 관심 고조를 위해 도시양봉 전문가 초빙 양봉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4월 제1차 양봉 세미나와 5월 'Bee a good afternoon' 나눔회, 본교 봄 축제에서 캠퍼스 텃밭 가꾸기 동아리 '피움' 지원과 같은 행사를 통해 환경대학원 양봉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이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의 참여 또한 독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이론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미나의 개최와 양봉으로 수확한 부산물을 나눔으로써 환경대학원의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발판삼아 우리나라 캠퍼스 양봉 최초로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벌의 양봉도 기대해볼 수 있다.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SGS 31기 수료식

지난 5월 15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과 옥상 하늘마당에서 제31기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31기는 2014년 10월 16일 출범하여 7개월 동안 총 26회에 걸쳐 도시·건축·조경·교통, 환경, 인문·예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환경 분야의 현안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가자 35명 중 30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문국현 SGS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 선배 펠로우, 수료자 등 60여명의 함께하며 수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31기 과정을 수료한 30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신혁(주에코벨리 부사장), 권수아(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권순식(코오롱위터엔에너지 상무), 권혁설(주엠아이티존 대표이사), 김종주(법무법인동우 변호사), 남경희(동국대학교교수), 류은자(환경조형예술 연구소 대표), 문제열(경기도청 친화경정책팀장), 문태현(주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전무이사), 박우평(KT estate 전무), 송향숙(여성과공간 연구소 소장), 신원남(안산시청 안전도시국장), 신천희(장수산업(주) 이사), 안영애(안스디자인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오세경(오림건설 상무), 오화식(조경사무소사람과나무(주) 대표이사), 윤홍노(주간삼건축 부사장), 이상인(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상진(지오조경기술사 사무소 대표), 이승제(서울나무병원(주) 원장), 이연소(주유열피 소장), 이용호(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이창수(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정진용(제일종합조경(주) 대표이사), 조상현(서울경찰청 보안과장), 조진형(드림시큐리티 부회장), 차승용(현대건설 상무), 최용준(아이서비스(주) 팀장), 허수경(주스페이스톡 대표이사), 황재식(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SGS 동계 해외답사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1기에서는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조선선비들의 영원한 로망, 동양적 이상향인 주자의 무이구곡 산수문화 유람, 중국 복건성 세계문화유산 토루 탐방'을 다녀왔다.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성종상 주임교수, 홍종호·백운수·최 열 공동주임교수, 전상인 교수와 31기 펠로우 16명이 함께 하였다.

중국의 10대 명산이자 중국 동남부 최고의 절경으로 뽑히는 세계문화유산 무이산에서 무이구곡의 동양적 산수경관문화 탐방 및 뗏목배로 감상하는 선유체험을 하였다. 토루는 12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객가(客家) 집합주택으로 독특한 주택양식을 지녔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SGS 31기 특별강연

관광관점에서 본 한국적 가치 : SGS 동창회 오픈특강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3월 26일, 이창 前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모셔 '관광관점에서 본 한국적 가치'를 주제로 특별강연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룸에서 진행된 강연에는 성종상 주임교수, 김광중 교수와 펠로우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前사장은 관광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확충방안에 대한 열정적인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산수화에 나타난 낙원의식 : 부부/가족 오픈특강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4월 23일, 이종상 화백(서울대 명예교수)을 모셔 '한국산수화에 나타난 낙원의식'을 주제로 특별강연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룸에서 진행된 강연에는 성종상 주임교수와 펠로우 가족 40여명이 참석하여 이종상 화백의 작업 과정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SGS 31기 양평 야생화마을 생태·문화 탐방

도시·환경최고위과정 31기는 지난 4월 24일에서 25일까지 '양평 야생화마을 생태·문화 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번 탐방에는 신천희 펠로우(장수산업(주) 이사)의 초청으로 조진형 자치회장을 비롯한 31기 펠로우 20여명이 함께 했다.



동문소식

7

동창회

제31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 관련 경과보고

2013년 5월에 출범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제20대 동창회 임원진은 2015년 5월 30일을 끝으로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 환경대학원 동창회를 이끌어갈 제21대 동창회 회장과 감사를 뽑는 선거를 실시하고, 주요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동창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안건들을 다루는 만큼 지금까지의 정기총회와는 달리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고심 끝에 온라인 총회 형태로 개최되었다.

		회칙개정 투표	회장 및 감사 선거
사전 절차	이사회	2015년 5월 6일(수)	
	후보등록·추천	-	2015년 5월 15일(금)까지
	사전 공고	2015년 5월 20일(수)	
온라인 총회	투표 공고	2015년 5월 26일(화)	
	온라인 투표	2015년 5월 26일(화) ~ 5월 29일(금) (4일간)	
	결과 공고	2015년 5월 30일(토)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동창회장에 선출된
이완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80년도 입학하여
환경계획학 석사로 졸업, 26회 행정 고시를 거쳐 30여년
고용노동부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왔습니다.
경상북도 칠곡·성주·고령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사)미래환경연구포럼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며
19대 전반기를 보내고,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땅을 효율적 이고 아름답게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연이어 환경대학원 5,000여 동문을 대표하는 동창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이 환경, 도시계획, 조정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사회지도적인 역할을 펼치고 있기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 우리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는 IT시대를 맞아 온라인 상에서 총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창회 온라인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거 외에도 회칙 개정안과 감사 선거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전공별로 동창회를 새로이 꾸려나갈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새로운 동창회를 꾸려나가는데 실질적인 공헌을 해주실 민봉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각
전공 부회장님, 운영이사님, 이사님, 그리고 환경대학원 원장님, 부원장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들이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문의
에너지를 한곳에 결집시켜 동창회의 조직을 정비하고자 매년 9월 동문 홈커밍 행사를
꾸려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열띤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시기의 동문수학은 성숙한 인생에서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난 것입니다. 환경대학
원에서 공부한 것과 축적해온 역량을 우리 동창회를 통해 더욱 승화시키고, 동문 간 친목
으로 서로 도와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한국 최고의 대학원 동창회로 만듭시다.

저 역시 의정활동에 충실하며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2015년 2월 회장단 신년모임에서 처음 논의된 이번 총회는 5월 6일 이사회를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이번 총회에서는 무엇보다 동창회 회칙의 일부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는 실무상 혼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창회를 전체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조직으로 구성함에 목적을 둔다. 회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 분류 중 '본 대학원'의 정의를 명확히 수정하고, 임원체계 중 수석 부회장을 도입하며, 현행 간사장·상임이사·이사의 체계를 운영이사·이사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수정하였다.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는 회칙 제8조에 따라 회장 1인, 감사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감사는 2인으로 이중 1인은 본회의 회원인 모교 교수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하에 후보등록 및 추천절차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장후보에는 이완영(계획 13회 / 제20대 동창회장)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하였고, 감사후보에는 김희병(조경 16회,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기, 19기 / 제20대 동창회 감사) 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와 이영성(계획 26회, 박사 14회 수료)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추천되었다.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 총회는 사전에 공고된 것과 같이 2015년 5월 26일에서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동창회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었다.

환경대학원 동창회 온라인 정기총회 결과보고

4일간의 온라인 투표 결과는 2015년 5월 30일에 최종 공고되었다. 중복 집계된 표를 제외한 후, 총 271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회칙 개정안 투표는 찬성 269표, 반대 1표, 기타 1표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회장 선거에는 찬성 242표, 감사 선거에서는 김희병 후보에 찬성 250표, 이영성 후보에 찬성 254표가 집계되었다. 이에 회칙 제13조에 따라 참여한 동창회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새로운 회장 및 감사가 선출되었다.

전공별 행사

조경·도시설계전공 동창회 홈커밍 데이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버들골 잔디밭에서 조경·도시설계 전공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였다. 조경·도시설계 전공 동창회(회장 안계동)는 전통적으로 매년 5월 5일에 홈커밍 데이를 개최해왔으나, 최근 들어 끊어진 것을 아쉽게 여겨 약 15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안계동 회장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동창회 임원들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하고, 홈커밍 데이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자'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안승홍 부회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본 행사에서 동문들은 오랜 만에 선·후배, 동기들을 만나 다채로운 행사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통전공 동창회 홈커밍 데이

2015년 5월 17일, 교통학전공에서는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간의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15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임강원 명예교수, 김성수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는 교수, 김태형 교수와 교통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총 49명이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버들골을 출발하여 승천거북전망대와 연주암을 거쳐 하산하는 등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부에서는 낙성대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저녁식사 시간과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SGS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SGS 총동창회(회장 문국현)는 2015년 1월 22일,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국현 회장(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 한솔섬유 대표, SGS 7기)을 비롯한 50여명의 동창회원이 함께 자리했다.

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원의 비전과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동창회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며 동창회의 화합을 강조하였다. 최막중 원장은 동창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하면서, 올 해에는 SGS동창회 장학금을 토대로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대학원 미래40'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유학생 지원(장학금)등 좀 더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배뇨 건강관리'를 주제로 윤동의 의학박사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환경계획학과 동문동정

- 정광섭(계획 7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15년 7월 15일 (사)한국녹색도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 박양호(계획 8회) 前국토연구원장은 지난 5월 21일 창원시정연구원 초대원장으로 임용되었다.
- 김일세(계획 9회) 동문은 그 동안 근무해온 (주)평화엔지니어링의 사장(해외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혜천(계획 11회, 박사 3회) 목원대학교 교수는 2014년 11월 7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 이기덕(계획11) 국가안보전략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국국가정보학회 2015년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선근(계획 13회) 대전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2일 중소기업청 지원 경영컨설팅대학원 개설기념으로 김홍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해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을 초청해 "젊음의 미래 과학기술에 묻는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의찬(계획 18회, 박사 6회) 세종대학교 대학원장은 최근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운영책임자로 선정되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climatechange.sejong.ac.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김명수(계획 19회)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조경두(계획 19회, 박사 6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부회장은 지난 6월 5일 COEX에서 개최된 '제20회 환경의 날' 정부기념식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김용준(계획 26회) 변리사는 특허청을 퇴직하고 2015년 1월 코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변리사로 취임하였다.
- 종전에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박무익(계획 박사 21회) 동문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국토교통관)으로 부임하여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있다.

환경조경학과 동문동정

- 오병태(조경 13회) 호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5일 호남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선임되었다.
- 나성숙(조경 14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과 교수는 2015년 6월 16일에서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북촌한옥 마을에서 III'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개인전은 옷칠, 회화 작품, 소반, 함과 함께 전통과 미디어가 융합된 작품들을 선보였다.
- 김민근(조경 18회) 롯데자산개발(주) 해외사업부문장은 중국 청두(成都)에서 '롯데몰 청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개시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롯데그룹의 '중국판 제 2 롯데월드'라 부를만한 개발사업이다. 쇼핑몰, 마트, 시네마뿐만 아니라 5성급 고급 호텔, 고급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 빌딩 등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김민근 동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오피스 등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25일에 롯데자산개발과 호치민시는 '호치민시 투티엠 지구 에코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서울에서 체결했다.
- 미국 뉴욕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태욱(조경 24회)동문의 조경설계사무소 슈퍼매스 스튜디오(Supermass Studio)가 미국 위스콘신 주 위스콘신 래피즈(Wisconsin Rapids)시의 위스콘신 수변공원 설계 용역제안에 당선되어 6월 1일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supermassstudio.com> / <http://www.facebook.com/pages/Supermass-Studio/203030316425621>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성현찬(협동과정 박사 2회) 단국대학교 교수는 연구년을 맞아 지난 3월 1일부터 1년간 미국 UC Berkeley 대학(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Visiting Professor로 생활하고 있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 **김광두**(도시·환경최고위과정 3기) 상명대 前겸임교수이자 원화조경 고문은 안산여성비전센터에서 조경기능사 및 실무과정(2015년 4월 ~ 9월)을 개설하여 푸른숲 안산도시 만들기의 장래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림대 평생교육원과 신한대·가든조아의 GARDEN COLLEGE에서 수목의 전지·전정과 병충해관리·잔디관리·비배 및 월동관리, 상명대에서는 지피식물학 및 실습을 강의하고 있으며, SKY72의 조경관리자문을 하고 있다.
- **변봉주**(도시·환경최고위과정 4기) 펠로우는 2월 27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서울중구신문사 창간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방기석**(도시·환경최고위과정 14기, SGS 총동창회 감사) (주)지비엠아이엔씨 대표이사는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기상산업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방 회장은 20년 이상 기상 예보 사업에 매진해 왔고 한국기상학회 산업이사를 역임한 기상 산업 전문가다. 한국기상산업협회는 앞으로 기상산업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며, 회원사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상기술을 지원한다.
- **김기숙**(도시·환경최고위과정 15기) (사)자연사랑 회장은 지난 2월 18일, '대한민국 통일희망, 남·북한나무심기 국민운동'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진행하였다. 한편 (사)자연사랑에서는 2015년 6월 10일에서 8월 5일까지 '제4회 물사랑 강사랑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예(글짓기, 표어, 시), 미술(포스터, 회화), 미디어(사진, UCC)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세한 내용은 <http://greenngo.or.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윤성선**(도시·환경최고위과정16기) 펠로우는 1월 19일, 제7대 일산서구청장에 취임하였다. 고양시 기술직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구청장은 1977년 5월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6년 9월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장, 공사과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환경생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을 역임했다.
- **김도현**(도시·환경최고위과정19기) 펠로우(前 문체부 차관)는 2015. 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운영법인 사단법인 행복드림 대표로 취임 봉사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 **이문구**(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SGS 총동창회 골프모임 회장) (주)다짐건설 대표이사는 5월 30일에 사무실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9. 정글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다.
- **윤병천**(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펠로우는 4월 1일자로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윤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 전 대한주택공사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상임이사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사장은 2018년 3월까지 3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이끌게 된다.
- **조충기**(도시·환경최고위과정 22기) 펠로우는 3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조충기 펠로우는 건축사사무소 간향 대표로 재직 중이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감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거쳐 제26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과 전국 시도건축사 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이다.
- **이승제**(도시·환경최고위과정 31기) (주)서울나무병원 원장은 3월 13일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사전예방 등의 분야는 뒤처져 있고 환경관련 일자리도 매우 적은 수준'이며 '자연환경복원업 제도 신설, 인접분야와의 협업 등으로 자연환경분야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SGS 자치회 소식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는 지난 5월 16일에 '아차산 등산' 행사를 가졌다. 이문구 자치회장과 박래훈 사무국장 등 펠로우 20여명이 함께 하여 친목을 다졌다.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30기(회장 강완수)는 지난 3월 20일, 31기(회장 조진형)를 초청하여 '친선 골프와 환영 만찬' 행사를 가졌다. 성종상 주임교수도 함께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져 동창회의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임이 오래 계속되길 바란다'며 축하와 격려를 하였다.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30기는 지난 6월 5일에서 6일까지에 '남해 투어' 행사를 가졌다. 강완수 자치회장을 비롯한 펠로우 및 가족 30여명이 참여하여, 골프 라운딩과 보리암, 원예예술촌 및 독일마을, 다랭이 마을 등을 둘러보았다.



동문출간



박성식(계획 박사 25회) DTZ 이사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한 책, '공간의 가치'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한다. 부동산 시장의 소소하고 중요한 일들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기술하였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공간, 생산성, 신용, 체계, 변화, 유형, 자본, 가치, 상품이라는 키워드로 재구성하였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13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도 독해할 수 있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공간의 가치 / 박성식 지음 / 유록출판 / 2015 / 374쪽)



문지영(조경 34회, 협동과정 박사 17회)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강사가 쓴 '미학적으로 교량보기' 단행본이 2015년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뽑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미학적으로 교량보기'는 교량 전문가들과 교량에 익숙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교량의 특성과 미학적 가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대화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집필하였다. 교량과 미학에 대해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 교량이 지닌 미학적 가치와 바라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미학적으로 교량보기 / 문지영 지음 / 씨아이알 / 2014 / 372쪽)

동문홍보

2015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 행사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는 201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새롭게 부활한 동문 홈커밍 행사를 매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동문 홈커밍 행사는 **2015년 9월 중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문 홈커밍 행사는 졸업생, 전·현직 교수님들, 재학생들이 모두 함께 보여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가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창회가 주최하고, 환경대학원 75, 85, 95, 05학번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SGS 32기 모집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2015-2016 / 32기 모집안내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이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주변의 뜻있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 2015년 9월 - 2016년 3월 (6개월, 주회 야간과정)

자격 | 관련분야 실무전문가, 임원,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장

접수 | 2015년 8월 21일 (금) 마감 (수시접수)

문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행정실 (김 배 사무장)

Tel 02-880-8525 Fax 02-882-5831

E-mail sgs@snu.ac.kr

홈페이지 <http://gses.snu.ac.kr>

SGS 총동창회 골프회 2015년 월례회 안내

SGS 총동창회 골프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매월 3번째 수요일에 이천 실크밸리CC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대학원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문의 |

이문구 회장 (20기)

주식회사 다짐 대표이사 / 010-5223-0867

조은혜 사무국장 (29기)

(주)승보디자인 대표 / 010-2218-8724

김완중 사무국장 (30기)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사 / 010-3843-6828

SGS 과정사무실/SGS 총동창회 사무국 김배 사무장

02-880-8525, sgs@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